

# 『벽소시고(碧笑詩稿)』의 편제와 이영민 한시의 특징

김 용 찬\*

## 차 례

1. 머리말
2. 이영민과 『벽소시고』
3. 이영민 한시의 특징과 작품 세계의 면모
4. 맺음말

### | 국문초록 |

한국의 근대 문학이 20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지만, 고전문학의 주요 작품들은 여전히 일제 강점기에도 활발하게 향유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 거세게 밀어닥친 근대화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척사(斥邪)와 '개화(開化)라는 상반된 의식이 대두하였다. 당시 활동하던 문인들의 한시 작품들에는 이러한 상반된 경향이 '우국(憂國) 혹은 '애국계몽(愛國啓蒙)이라는 주제로 집약되어 표출되었다.

특히 이러한 주제의 한시 작품들은 신문을 비롯한 다양한 지면을 통해서 발표되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한시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검토함으로써, 당대에 대한 시대 인식의 양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신문과 잡지에 수록된 한시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반면에 일제 강점기 동안 한시를 창작했던 문인들의 문집과 한시의 작품 세계에 양상에 관해서는 연구 성과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일제 강점기 문인들의 한시 창작에 관한 양상의 일단을 살펴보기 위해, 여기에서는 벽소(碧笑) 이영민(李榮珉, 1882~1964)의 문집 『벽소시고(碧笑詩稿)』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벽소시고』에는 120수가 넘는 이영민의 한시 작품이 수록되어 있기에, 이 문헌의 검토를 통해 당시 한시 작가들의 활동과 작품 세계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영민은 일제 강점기에 순천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이며, 순천 지역에서 농민운동에 뛰어들어 소작쟁의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같은 기간 동안 한시를 창작하면서 문집을 엮어냈지만, 이영민의 문인으로서의 면모는 아직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 이영민은 일제 강점기에 전통 예술인들을 순천으로 불러 공연을 주선하였고, 그들의 음악에 대해 한시를 창작하여 그것을 배경을 사진을 찍어 남기기도 했다. 그는 문인으로서 자신이 창작한 한시를 엮어 『벽소시고』라는 문집을 편찬했다. 여기에서는 이영민의 문집에 수록된 작품을 대상으

\* 순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로 제목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이와 함께 각각의 항목의 특징을 검토함과 아울러 일부 작품들을 제시하면서 작품 세계를 논하였다. 또한 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검색하여 이영민의 활동 양상을 재구하여 소개하고, 『벽소시고』의 편제와 수록 작품의 면모와 특징을 검토하였다.

**핵심어** : 벽소 이영민, 벽소시고, 문집, 한시 창작, 일제 강점기, 농민운동 등.

## 1. 머리말

한국의 근대 문학이 20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지만, 일제 강점기에도 여전히 고전문학의 주요 작품들이 활발하게 향유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서구의 문학 이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양식의 작품을 창작하는 문인들이 활동의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방식으로 문학 활동을 지속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서양으로부터 발원한 근대 문학 이론과 갈래들이 문단의 중심 영역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한시문을 창작하며 교류했던 지식인들도 존재하고 있었다. 18세기 후반부터 거세게 밀어닥친 근대화의 물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척사(斥邪)’와 ‘개화(開化)’라는 상반된 의식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이는 새롭게 등장한 외래의 이념을 배척하느냐 혹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와 연관되는데, 당시 활동하고 있던 전통 문인들의 한시 작품들에는 이러한 상반된 경향이 ‘우국(憂國)’ 혹은 ‘애국계몽(愛國啓蒙)’이라는 주제로 집약되어 표출되었다.

특히 이러한 주제의 한시 작품들은 신문을 비롯한 다양한 지면을 통해서 발표되었으며, 일제 강점기에도 꾸준히 창작되었음이 확인된다.<sup>1)</sup> 따라서 이 시기에 활동했던 한시 작가들의 면모와 그들의 작품 세계를 검토함으로써, 당대의 시대 인식에 대한 그들의 대응 양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근대 이후 발행되었던 신문과 잡지 등의 매체에 수록되었던 한시 작품들을 수집하여 자료집으로 정리한 성과물이 출간되었고,<sup>2)</sup> 이를 토대로 해당 매체에 수록된 한

1) 일제 강점기에도 각 지역에서 유림(儒林)의 활동이 지속되었고, 심지어 『동아일보』 등 일간신문에도 한시를 모집하여 게재하는 등 당대 지식인들의 한시 창작 활동이 활발했다고 한다. 이혜령, 「한자 인식과 근대어의 내셔널리티」, 『탈식민의 역학』, 소명출판, 2006, 241쪽.

2) 이희목 외, 『일제 강점기 한시 자료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이희목은 후속 연

시 작가와 작품들에 대한 개략적인 정리 작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sup> 신문과 잡지에 수록된 한시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반면에 일제 강점기 동안 한시를 창작하며 활동했던 문인들이 출간한 문집이나 그들의 한시 창작의 양상에 대해서 자료의 조사나 연구 성과가 아직까지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일제 강점기 문인들의 한시 창작 양상의 일단을 살펴보기 위해, 여기에서는 벽소(碧笑) 이영민(李榮珉, 1882~1964)의 문집 『벽소시고(碧笑詩稿)』에 수록된 한시 작품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벽소시고』에는 120수가 넘는 이영민의 한시 작품이 수록되어 있기에, 이 문헌의 검토를 통해 당시 한시 작가들의 활동과 작품 세계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영민은 주로 일제 강점기에 순천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로서 알려져 있었으며,<sup>4)</sup> 당시 순천 지역의 소작쟁의를 주도했던 행적을 중심으로 그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sup>5)</sup> 일제 강점기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했던 이영민의 모습은 당시의 신문 기사를 통

---

구를 통해서 ‘일제 강점기에도 애국 계몽기와 견주어서도 결코 양적으로 적다고 할 수 없는 호한 양의 한시가 창작되었던 실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시 창작된 한시의 경향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개인 문집을 제외하고도 당시 신문과 잡지에 수록된 한시 작품은 ‘45종의 매체에서 19,000여 수’를 상회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희목, 「일제 강점기 한시 소고」, 『인문과학』 45,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0, 7~8쪽.

- 3) 일제 강점기 신문과 잡지 등에 수록된 한시를 고찰한 연구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김풍기, 「〈해동집〉의 편찬과 그 의미」, 『강원문화연구』 24,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5; 이종목, 「일제 강점기 한문학 연구의 성과」,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 박영미, 「〈대동학회〉·〈신문계〉·〈조선문예〉 소개 한시에 나타난 ‘봄’ 상정에 관한 일고찰」, 『한문학논집』 23, 근역한문학회, 2005; 진재교, 「근대 전환기 한시의 대응: 근대 인쇄 매체와 한시와의 상관성」, 『한국시가연구』 24, 한국시가학회, 2008; 이희목, 「일제 강점기 한시 소고」; 윤재환, 「일제 강점기 신문 소재 한시의 성격: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소개 회고 한시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38,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3; 정훈, 「일제 강점기 한시 잡지 〈해동집〉의 간행과 특성 연구」, 『국어문학』 77, 국어문학회, 2021; 정소연, 「근대 여성잡지에서의 한시 수록 양상과 의미: 노래의 향유자에서 시의 독자로서의 여성」, 『국어국문학』 199, 국어국문학회, 2022; 임보연 외, 「근대 전환기 한시의 역할: 〈삼천리〉를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49, 한국리터러시학회, 2022 등.
- 4) 예컨대 다음과 같은 신문 기사를 통해 그 양상을 짐작할 수 있다. 송기동, 「전라도 천원 인물열전 (34) 순천의 민족독립운동지사 벽소 이영민」, 『광주일보』 2018년 10월 17일 및 24일 기사.
- 5) 장체열, 「의기의 역사 항쟁의 도시 4. 일제 강점기 순천의 민족민중운동」, 『순천광장신문』 2023년 2월 28일 기사 참조. 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인용하여 이영민의 활동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에, 일제 강점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던 이영민의 일생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같은 기간 동안 한시를 꾸준히 창작하면서 문집을 엮어내는 등 문인으로서의 면모는 아직 제대로 조망되지 않았다. 그동안 이영민의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가사(허두가) <순천가>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 바 있으며,<sup>6)</sup> 당시 순천을 방문한 전통 예술인들에게 써주었던 그의 한시를 통해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예술 후원자로서의 면모를 밝힌 연구 성과들도 제출되었다.<sup>7)</sup>

이영민은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활동 무대가 그리 많지 않았던 전통 예술인들을 순천으로 불러 공연을 주선하였고, 그들의 음악에 대해 한시를 창작하여 그것을 배경을 사진에 남기기도 했다.<sup>8)</sup> 기실 판소리 창자 등 전통 예술인들을 소재로 한시를 창작한 것도 이영민의 문인 활동의 일환이었으며, 이밖에 문집에 수록된 한시 작품들을 포함하여 그의 문학 세계를 살펴보는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일제 강점기 당시 사회주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농민운동에 투신했던 독립지사로서의 행적과 더불어, 문인으로서 한시 창작도 꾸준히 진행하여 『벽소시고』라는 문집을 남겼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집의 ‘부록’으로 수록된 전통 예인들에게 지어준 한시와 판소리 창본을 한역한 <옥중화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졌기에, 여기에서는 『벽소시고』의 본문에 해당하는 이영민의 한시 작품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 세계의 특징적 양상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겠다. 이를 위해 먼저

6) 김용찬, 「벽소 이영민과 <순천가>」, 『한민족어문학』 58, 한민족어문학회, 2011. 그 외 허두가로서 <순천가>의 사설을 음악적으로 분석한 두 편의 학위논문이 제출되어 있다. 제정화, 「벽소 이영민의 <순천가>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송보라, 「단가 <순천가> 연구: 사설과 붙임새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4.

7) 임성래, 「이영민 한시를 통해 본 판소리 명창의 세계」, 『판소리연구』 10, 판소리학회, 1999; 정혜정, 「순천 지역 판소리 전승 양상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송미경, 「『벽소시고』 소재 <옥중화가>의 특징 및 당대 판소리와와의 관련성」, 『판소리연구』 49, 판소리학회, 2020; 정혜정, 「벽소 이영민의 판소리 향유 방식과 의식지향: <옥중화가>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50, 판소리학회, 2020.

8) 전통 예인들을 소재로 한 이영민과 지인들의 한시 작품들이 수록된 자료는 모두 3종이 전해지고 있다. 『벽소시고』 부록인 「근대국악계인물(近代國樂界人物)」에 수록된 전통 예인 41명을 표제로 한 한시 작품이 그 가운데 하나이며, 다른 2종의 문헌은 이영민과 지인들이 창작한 한시 작품을 배경으로 해당 인물을 찍은 사진 자료집이다. 이영민의 조카 이정규가 52명의 사진에 간략한 해설과 한시 작품의 원문 및 번역문을 수록하여 엮은 『한국 국보급 국창·명창·명고·명금 사진시집』(순천사진인쇄공사, 간행 연도 불명)이 그중 하나이며, 나머지 하나는 ‘(사)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판소리 진흥회’에서 54명의 사진과 한시 그리고 해당 인물들의 인적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펴낸 『한국 국악 인명록: 관극(觀劇)·시(詩)·사(寫)』(간행 연도 불명)이다.

당시의 신문 기사들을 검색하여 이영민의 활동 양상을 재구하여 소개하고, 『벽소시고』의 편제와 수록 작품의 면모와 특징을 살펴보겠다.

## 2. 이영민과 『벽소시고』

순천에서의 근대 문학 활동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오히려 전통 문학 양식인 한시문(漢詩文)을 통해서 교류하며 활동하는 문인들이 적지 않았다. 순천에서 근대 문학의 전개가 늦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예술의 향유가 지속되었고, 이와 함께 지역 문인들의 한시문을 통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sup>9)</sup> 일제 강점기에도 순천 지역에서는 문인들이 시사(詩社)를 조직해 한시를 창작하는 등 전통 문예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0)</sup> 문인이자 서예가로 활동했던 벽소 이영민은 일제 강점기 순천에서 사회 활동과 문화 활동을 주도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먼저 당시의 신문 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이영민의 사회 활동과 문인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하면서, 그가 남긴 『벽소시고』의 편제에 대해서 논해보기로 하겠다.

이영민은 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에 꾸준하게 한시를 창작했던 문인이자 농민운동에 투신하여 소작쟁의를 주도하는 등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인물이다.<sup>11)</sup> 그는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어릴 때의 이름은 희수(熙守)로 취산(醉山)과 벽소(碧笑) 그리고 ‘옥류정 주인(玉流亭主人)’이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일찍이 한학(漢學)과 서예를 익혔으며, 한성사범학교를 졸업

9) 순천 지역 근대 문학의 전개 양상과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임성운, 「순천 지역의 근대 문학」, 『남도문학과 근대』, 케포이북스, 2012.

10) 이희목은 조선시대 문인들의 시사(詩社) 활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으로까지 확산되어 상당한 성황을 이루었으며, 특히 진주와 구례, 순천 등의 시사가 매우 왕성하게 활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희목, 「일제 강점기 한시 소고」, 12쪽. 『벽소시고』의 수록 작품들을 검토하면서, 이영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시사 활동의 면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1) 이영민의 생애와 활동 양상에 대해서는, 그의 유족들이 국가보훈처에 항일독립운동가로 지정받기 위해 작성한 ‘독립운동가 포상 신청서’(2007년 8월)와 그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재구했음을 밝힌다. 이영민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포상은 2008년 2월에 한 차례 반려되었다가, ‘보완신청서’(2008년 12월)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결국 지정을 받지 못했다.

하고 고향인 순천으로 돌아와 야학을 개설(1902)하여 후학들을 위한 교육 운동을 벌였다. 이후 황천면 출신의 지주인 박승휘(朴勝徽)와 함께 순천남학당(현 순천남초등학교)을 공립으로 인가받아, 1912년부터 1916년까지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일제의 탄압 정책이 거세지자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교원을 사직하였으며, 이듬해인 1917년부터 약 3년간 중국으로 가서 망명 생활을 하며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sup>12)</sup>

중국을 떠나 1919년에 귀국한 이영민은 이듬해인 1920년부터 순천에서 본격적인 사회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sup>13)</sup> 1922년부터 동아일보 순천 본국의 기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sup>14)</sup> 소작총회에 참석<sup>15)</sup>하는 등 순천농민연합회 등에도 소속되어 본격적인 농민운동에 뛰어들게 된다.<sup>16)</sup> 순천농민연합회가 창립된 직후부터 순천의 각 면과 광양과 구례 등 인근 지역에도 농민회가 속속 창립되는데, 이영민은 농민회가 창립되는 현장에 참석하여 소작농의 현실을 알리고 농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연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7)</sup> 이처럼 당시 거세게 전개되었던 소작쟁의의 현장에 소작농을 대표하여

12) 아마도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독립운동을 하다 중국에서 생을 마친 윤현진(尹顯振, 1892~1921)을 조문하는 한시가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도량과 문장은 한 시대의 보배인데 / 가벼운 배로 바다 건너 서쪽 중국으로 들어갔다네 / 용이 비바람에 울조리고 외로운 등 켜진 밤에 / 기러기는 고향 소식 끊었고 만리 밖에서 봄을 맞았다네 / 짐을 풀어놓고 많은 천하의 선비들과 교제했으며 / 저술한 글로 능히 나라 사람들을 일으켰다네 / 어찌다 일찍 천대(泉臺)의 객이 되어 / 부질없이 나로 하여금 수건을 흥건하게 적시게 하는가.(氣宇文章一世珍, 輕舟出海入西秦, 龍吟風雨孤燈夜, 雁斷鄉山萬里春, 說劍多交天下士, 著書能起國中人, 如何早作泉臺客, 讒使吾生淚滿巾.)”, 「조윤현진(吊尹顯振)」, 『벽소시고』. 이 작품에는 제목 아래 ‘광복 운동의 선구자로, 중국 상해에서 죽었다(光復運動先驅者, 死于上海)’라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13) 『조선일보』(1920.9.1.)의 기사에 의하면, 1920년 7월 창립된 순천지방청년회에서 이영민은 창립 취지 설명을 하였으며 이어 청년회의 의사부장으로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14) 『동아일보』(1922.4.22.)의 「사고(社告)」에 ‘순천분국장 이창수, 기자 이영민·한태선·박병두, 고문 최이순’ 등의 발령 사항이 전하고 있다. 1925년 11월 17일의 「사고」에는 순천분국이 순천지국으로 승격되어, 이영민이 지국장으로 발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주도적으로 ‘순천기자단’을 창립하는 등 기자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지국장도 기자 역할을 겸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15) 1923년 2월에 순천의 소작 대표자들이 환선정에 모여 농민대회를 조직하였으며, 이영민은 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임되었다. 「순천면 소작총회」, 『조선일보』 1923.2.9. 기사 참조.

16) 1923년 2월에 개최된 순천농민연합회에 각 면 농민 대표 중의 한 사람으로 이영민이 참가했으며,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고 상무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순천농민연합회」, 『동아일보』 1923.2.26. 기사 참조.

17) 당시 각 지역 농민회의 창립에 관한 신문 기사와 이영민이 초기에 행했던 연설 제목 가운데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주들로부터 소작료의 감세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sup>18)</sup> 일제의 정책에 야합하여 소작료를 올리거나 소작권을 빼앗는 등 지주들의 부당한 횡포로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었던 소작농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을 위해 이영민은 적극적으로 소작투쟁에 동참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순천 연학회(研學會)’<sup>19)</sup>를 창립하여 임원으로 활동했으며, 노동운동에도 뛰어들어 ‘순천노동대회’를 창립하고 노동자의 교육을 위해 노동야학을 설립하여 강사로 나서기도 하였다.<sup>20)</sup> 또한 기자로서 인근 지역 기자들과의 연대 활동도 펼치며 농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기사로 작성하고, 일제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경찰이나 단체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sup>21)</sup>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에 자신이 창작한 한시를 투고하는 등 문인으로서의 활동도 꾸준히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신문과 잡지에는 한시를 수록하는 고정란을 두기도 했는데, 조선일보의 「사조(詞藻)」<sup>22)</sup>와 동아일보의 「금고시총(今古詩叢)」 등이 확인되고 있다. 1922년 12월부터 1923년 12월까

일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상사농민회 강연 -농민의 단결과 회의 발전에 대하여’(『동아일보』 1923.4.22.); ‘별량면 농민회 강연 -농민의 각성’(『동아일보』 1923.4.24.); ‘해룡면 농민회 강연 -농민의 자각’(『조선일보』 1923.5.11.); ‘광양소작회 강연 -시대와 농민’(『동아일보』 1923.5.14.); ‘(구례) 마산농민 총회 -착혈귀(榨血鬼) 습래(襲來)’(『동아일보』, 1923.12.23.) 등.

- 18) 이영민이 소작농을 대표한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여 소작농들의 빼앗긴 소작권을 회복시키고 지세 반환을 이끌었으며, 당시 5할이던 소작료를 4할로 감세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소작쟁의도 점차 해결 지세 반환 요구가 착착 실행」, 『조선일보』 1923.8.5.; 「소작료 4할과 소작 기한 연장」, 『동아일보』 1923.11.13.; 「순천농회 활약 박탈된 소작권 거게 회복」, 『동아일보』 1924.5.18.; 「악지주에게 철저 대항」, 『동아일보』 1925.10.6. 등의 기사 참조.
- 19) ‘순천 연학회’는 당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창립되었는데, 이영민은 서적 전무위원으로서 ‘신문 잡지와 수양(修攘)에 관한 서적, 사조(思潮)에 관한 서적’ 등을 구독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순천 연학회 총회」, 『동아일보』 1923.6.11. 기사 참조.
- 20) 1923년 5월에 환선정에서 ‘순천노동대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이영민이 부회장으로 피선되었으며(「순천 노동대회의 상황」, 『조선일보』 1923.6.17.), 같은 해 8월부터 노동야학을 시작하여 강사로 참여하기도 했다.(「순천 노동야학 개시」, 『동아일보』 1923.8.9.)
- 21) 기사 내용을 빌미로 기자를 구류한 경찰의 조치에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이영민이 기자 대표로 경찰 당국에 항의하는 질문자로 선정되기도 했다.(「순천에 기자대회」, 『동아일보』 1923.9.5.) 당시 발생한 인권 유린의 사례를 들어 경찰을 성토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임시의장으로서 대회의 취지를 참석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도 확인된다.(「순천 11단체 경찰 성토대회」, 『동아일보』 1924.3.0.)
- 22) 당시에 ‘사조(詞藻)’는 일반적으로 한시(漢詩)를 지칭하는 말이었고, 신문과 잡지 등에는 ‘사조란’을 두어 전통 문인들의 한시를 수록했다고 한다. 민병수, 「한말의 우국문학」, 326쪽.

지 약 1년 동안 조선일보의 「사조」란에 ‘취산(醉山) 이영민’이란 작자명으로 26수(24제)의 한시가 게재되었으며,<sup>23)</sup> 동아일보의 「금고시총」에는 1924년 9월과 10월에 ‘벽소(碧笑)란 호로 이영민의 한시 4수가 수록되었음이 확인된다.<sup>24)</sup> 조선일보에 가장 먼저 수록된 한시는 소작인들의 비참한 생활을 그린 <소작루(小作淚)><sup>25)</sup>란 제목의 작품이며, 연자루(燕子樓) 등 순천의 승경을 대상으로 하거나 자신의 신변을 형상화한 작품들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지은 작품이 대부분이다.

당시 순천과 인근 지역에서 소작쟁의를 주도했던 이영민은 일찍부터 일제에 의해 문체 인물로 주목되어, 가택 수색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sup>26)</sup> 이처럼 농민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신하면서 그는 일찍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는데, 사회주의 잡지를 발행하려고 설립한 ‘화화사(火花社)’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파악된다.<sup>27)</sup> 아울러 전국적으로 관련 인사를 체포하면서 전개되었던 조선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일제의 대표적인 악법인 ‘치안유지법’으로 1년 6개월 형을 받고 투옥되었다.<sup>28)</sup> 이영민은 1928년 12월에 만기 출소 후 인

- 23) 『식민지 시기 한시 자료집』에는 조선일보에 투고했던 이영민의 한시 작품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이 수치는 당시 신문 기사의 원문 검색을 통해서 필자가 확인한 결과이다. 이희목은 일제 강점기 한시의 특징을 논하면서, 조선일보에 게재되었던 이영민의 한시 3수를 ‘민중에 대한 관심과 지식인의 고뇌란 항목으로 조망하고 있다. 이희목, 『일제 강점기 한시 소고』, 15~17쪽.
- 24) 동아일보에 수록된 4수 중 3수는 이미 조선일보에 게재되었던 작품이며, 새로운 작품은 <강촌(江村)>(『동아일보』 1924.9.19.)으로 이 작품이 『벽소시고』에는 <강촌즉사(江村卽事)>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게재되었던 작품들 가운데 일부는 이영민의 문집 『벽소시고』에 수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후후 신문에 수록된 한시만을 다른 별도의 연구를 통해서 그 내용과 의미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 25) 『조선일보』 1922.12.6. 「사조」란에 수록.
- 26) 「노동회의 간부 가택 수색」, 『동아일보』 1924.8.18. 기사.
- 27) “현재 조선 안에 나타나 있는 사상단체의 수효도 적지 안거니와 그의 운동도 점점 발전되어가는 현상이나 이에 운동을 조장(助長)할만한 언론기관이 별로히 많지 못함을 운동자 사이에는 늘 유감으로 생각해오던 바 이에 공명하는 주의자들의 발기로 이번에 우에 말한 목적을 관철기 위하여 『화화사』를 창립하였는데 임시로 사무소는 시내 낙원동에 있는 화학회 안으로 명하였스며 이로부터 기관지 『화화』와 때때로 ‘팜플렛’ ‘리플렛’을 발행허리라는 발기인은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 1925.1.28. 기사 참조.
- 28) 당시 판결문에 의하면 이영민은 조선공산당의 세포조직인 야체이카에 가입하여 비밀리에 활동했으며, 그로 인해 가택 수색을 당한 후 검거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가택 수색 후 3씨를 검거 송치」, 『조선일보』 1926.7.10.; 「중야(中野) 검사의 공소사실 전문」, 『조선일보』 1927.9.17.; 「연도바든 피고(이영민 1년 6개월)」, 『조선일보』 1928.2.14. 기사 참조. 체포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그만두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문에는 이영민의 직업이 농민으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순천에서 같이 체포된 이창수는 시대일보 순천지국장으로, 박병두는 조선일보 순천지국



터뷰에서 감옥에서, ‘시작(詩作)으로 세월을 보냈다’라고 밝히기도 하였다.<sup>29)</sup> 출소 이후에도 이영민은 한동안 순천농민조합의 위원으로 농민운동에 투신했으며,<sup>30)</sup> 집이 없는 세입자들을 위해 ‘차가인(借家人) 동맹’을 결성하여 임대료를 낮추는 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sup>31)</sup> 하지만 1932년 ‘모종의 비밀결사 혐의’<sup>32)</sup>로 체포된 이후, 이영민의 대외적인 사회 활동은 신문 기사에서 한동안 발견되지 않는다.

이후 신문 기사에서 보이지 않던 이영민의 행적은 서예가로서 서도전(書道展)에 입선했다는 내용으로 다시 등장하는데,<sup>33)</sup> 아마도 이 기간에는 일제의 요시찰 대상이 되어 지역에서의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자 문화 예술 활동에 종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에 이영민은 김중익(金鍾翊, 1886~1937)<sup>34)</sup> 등 지역의 유지들과 함께 판소리 창자를 비롯한 예술인을 후원하는 등 문화 활동에 뛰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순천을 방문했던 예술인들에게 한시를 지어주고 사진을 찍어 남겼으며, 이렇게 남겨진 자료들은 일제 강점기에 활동했던 전통 예술인들의 예술 세계와 활동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듯 자신의 한시를 전통 예술인에게 지어주는 등 이영민은 서

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3중 죄명」, 『조선일보』 1927.9.13. 기사 참조.

- 29) 「시작(詩作)으로 세월(歲月)을 보내었다는 / 이씨(이영민)의 옥중담(獄中談)」, 『조선일보』 1929. 1.6. 기사. 이영민이 투옥되었던 시기의 심정을 각각의 계절에 따라 노래한 한시 4수가 『벽소시고』에 수록되어 있는데, 작품의 제목은 각각 다음과 같다. <영어춘감(圍園春感)>, <영어하감(圍園夏感)>, <영어추감(圍園秋感)>, <영어동감(圍園冬感)> 등.
- 30) 동아일보에서 주관한 ‘주요 도시 순회 간담’에서 이영민은 순천농민연합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하였음이 확인된다. 「주요 도시 순회좌담(114) 제24 순천편 1」, 『동아일보』 1931.1.29. 기사.
- 31) 「차가인(借家人) 동맹 순천서 발기」, 『동아일보』 1930.11.29.; 「순천 가임(家賃) 감하(減下) 운동」, 『조선일보』 1930.12.2. 기사 참조.
- 32) 「보성 벌교 등지에서 피검자 50여 명」, 『조선일보』 1932.4.24. 기사. 이 사건의 처리 결과는 기사로 확인되지 않으며, 재판에 넘겨졌다는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곧 방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전에 치안유지법으로 1년 6월 형을 받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에 의해 집중적으로 감시를 당하면서, 이로 인해 이영민은 농민운동 등 사회 활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33) 「순천 이영민 씨 삼국서도전에 입선」, 『동아일보』 1940.5.18.; 「흥아서도전(興亞書道展)에 이영민 씨 입선」, 『조선일보』 1940.5.30. 기사 참조.
- 34) 우석 김중익은 순천농업학교(현 순천대학교)를 설립하는데 부지와 건물대금을 전액 부담하였고,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를 설립하는 등 식민지 시절 교육 사업을 통한 후학들의 양성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유언을 남겨, 재산의 반을 교육 사업과 국악을 후원하는 등의 사회 공익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였다.(『순천시사 : 문화·예술편』, 101~108쪽 참조)

예가이자 문인으로 순천과 인근 지역의 문인 및 예술가들과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쳤다. 그는 당시 ‘추사체 계의 거두’<sup>35)</sup>로 평가되었으며, 이영민의 서체는 호를 따서 ‘벽소서체’라고 불리고 있다. 아울러 문인으로서 한시 창작에 매진하고 그 결과물로 『벽소시고』라는 시집을 엮어낼 수 있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서예학원 등을 운영하다가 1964년 광주에서 생을 마쳤다.

이영민은 순천과 인근 지역의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한시를 창작하고 시사(詩社)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그가 창작한 한시들을 엮은 문집 『벽소시고(碧笑詩稿)』이다.<sup>36)</sup> 『벽소시고』는 등사본으로 부록을 포함하여 전체 62면에 달하고, 문집의 본문에 수록된 이영민의 한시 작품은 모두 125수로 확인된다. 그의 한시에 형상화된 작품 세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벽소시고』의 편제를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하겠다. 독립운동가이자 서예가인 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이 표지에 한자로 『벽소시고(碧笑詩稿)』라는 표제를 썼으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위창 팔십용 오세창(葦滄八十翁吳世昌)’이라는 글과 함께 오세창의 도서(圖書) 2개가 찍혀있다. 이로 미루어 『벽소시고』의 편찬 작업은 오세창의 80세 무렵인 1943년 이전에 이뤄졌으며, 수록 작품의 면면으로 보아 이후에 창작한 작품들도 꾸준히 보완된 것으로 확인된다.

『벽소시고』의 편제는 크게 3개의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장 먼저 ‘벽소시고서’와 문집의 발간을 축하하는 지인들의 한시가 권두부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어 이영민의 한시 125수를 중심으로 일부 작품에는 지인들의 수작시(酬酬詩)가 함께 수록된 본문이 문집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뒷부분에는 ‘부록’이라는 항목이 배치되어 있다. 앞서 논했듯이 문집의 표지에는 오세창의 글씨

35) 「일만지(日滿支) 서도전람회 이영민 씨 입선」, 『동아일보』 1939.11.26. 기사. 이 기사에서 ‘조선 총독부 주최 제1회 서도전람회’ 등에서 입선한 소식과 함께, 이영민을 ‘추사체 계의 거두’라고 평가하는 표현이 등장한다.

36) 현재 『벽소시고』 원본의 행방은 알 수 없으며, 유족들에 의해 제출되었던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2007)의 참고 자료로 첨부된 사본만이 전해지고 있다. 이영민의 방계 후손인 (사)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이사장 이광하 씨를 만나 확인한 결과, 유족들도 문집 원본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족들이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복사본(대략 15×25cm)을 만들어 놓았기에, 사본의 형태로나마 『벽소시고』가 전해질 수 있었다고 하겠다. 젊은 시절 문집 원본을 직접 접했던 이광하 씨의 증언에 의하면, 『벽소시고』의 원본은 등사본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로 『벽소시고』라는 제목이 표기되었으며, 권두 항목에 서문이 시작되기 전 별도의 페이지에 ‘벽소시집(碧笑詩集)’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영민의 한시가 수록된 본문이 끝나고 다시 「(부;附) 청구악부초(靑邱樂府抄)」와 「근대국악계인물(近代國樂界人物)」이라는 항목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앞부분의 한시들은 ‘벽소시집’ 그리고 뒷부분의 부록까지를 포함하여 책의 제목을 『벽소시고』라 인식하여 명명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영민은 문집을 엮으면서 보성 출신의 문인이자 서예가인 소파(小波) 송명회(宋明會, 1872~1953)의 서문(1941)을 수록하였다.<sup>37)</sup> 이와 함께 지인들에게 시집 출간을 축하하는 뜻으로 한시를 청탁하여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제(贈題)>라는 제목으로 모두 7명의 작품 15수를 서문에 이어 수록하였다.

송명회의 서문과 지인들의 <증제>란 한시에 이어, ‘벽소시집(碧笑詩集)’이라는 제목을 내세우고 행을 바꿔 ‘옥류정선(玉流亭選)’이라는 표기를 덧붙였다. ‘옥류정’은 옥천 근처에 있던 정자로 여겨지는데, 한때 ‘옥류정 주인’이라는 별호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 이영민의 소유로 지인들이 이곳에 출입하면서 교류했던 장소로 추정된다.<sup>38)</sup> 이러한 표기에 이어, 문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에는 자신의 한시 125수와 이영민과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지인들의 한시 11수가 해당 작품들과 나란히 수록되어 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육언(六言)’이라는 표제 아래 별도의 제목 없이 3수의 작품 그리고 ‘오절(五絕)’에는 <강행(江行)> 등 3수가 보이며, 이어서 <교행(郊行)>(2수)과 <관위기(觀圍碁)> 등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부록이 시작되기 전인 ‘벽소시집’의 맨 마지막에 수록된 ‘학생혁명(學生革命)’<sup>39)</sup>과 ‘이박사망명포왜(李博士亡命布哇)’<sup>40)</sup>란 제목

37) 송명회의 생애와 한시에 관해서는 김대현, 「소파와 설주의 생애와 시문학 연구」(『고시가연구』 17,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8) 판소리 창자인 한순애에게 써준 한시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에 ‘옥류정 주인 이벽소(玉流亭主人, 李碧笑)’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옥류정은 이영민이 경영했던 정자로 파악된다.

39) 2수로 이뤄진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러 나라 천고의 역사를 거슬러 살펴보니 / 학생혁명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네 / 독재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거꾸러져 소멸하고 / 진한 피로 쓴 꽃다운 이름은 대를 이어 남으리라.(溯考列邦千古史, 學生革命我韓初, 獨裁倒滅風前燭, 碧血芳名永代餘.) 2. 전국 방방곡곡에서 성내어 부르짖는 소리 / 우레처럼 땅을 움직여 하늘을 기울인 듯하였네 / 의로운 영혼과 충성스러운 님들이 웅당 먼저 춤출 것이니 / 밝은 달은 저승에서 축하의 잔을 들리라.(全國坊坊怒號聲, 百雷動地欲天傾, 義靈忠魄應先舞, 白月泉臺舉祝觴.)”

40) “나라 사랑한다더니 어찌 망명객이 되었나 / 아내 데리고 짐 싸서 새벽길을 나섰다네 / 독재의 큰 자취는 민생의 고통이었으니 / 떠난 후 온 나라에서 눈물 흘린 사람 하나도 없었네.(愛國胡

의 시들은 1960년 ‘4.19혁명’ 이후의 상황을 담고 있다. 이 작품들은 그 필체나 형식으로 보아 문집의 편찬이 완료된 후 나중에 덧붙여진 것으로 파악되는데,<sup>41)</sup> 이영민의 한시 창작은 말년인 이 시기까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록인 「청구악부초(靑邱樂府抄)」에는 판소리 <춘향가>의 내용을 장편의 한시로 만든 <옥중화가(獄中花歌)>를 비롯하여 전통 음악을 소재로 한 5수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sup>42)</sup> 이어지는 「근대국악계인물(近代國樂界人物)」이라는 표제 아래 송만갑(宋萬甲)·이동백(李東伯) 등 41명의 판소리 명창 등 음악인들을 소개하는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sup>43)</sup> 맨 마지막에는 <신시(新詩)><sup>44)</sup>라는 제목으로 한글로 작성된 1편의 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아 문집의 발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앞서 논했듯이 이영민은 판소리 창자 등 음악인들에 대해 한시로 평을 한 후, 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남겨 놓았는데, 이를 통해 일제 강점기에 순천에서 국악인들을 후원했던 활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sup>45)</sup> 일제 강점기에 판소리 후원자로 활동하면서 당대 예술계에 끼친 그의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으며, 그가 남긴 판소리 창자 등 음악인들의 사진과 그들의 예술 세계에 대해 평한 한시들은 예술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이들 명단에서 ‘창극(唱劇)’ 혹은 ‘창극조(唱劇調)’로 소개된 판소리 창자들이 모두 33명으로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당대에 활동했던 판소리 명창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명고(名鼓)’로 소개된 고수(鼓手)는 한성준(韓成俊)·정원섭(丁元燮) 등 2명이며, 거문고 연주자인 ‘금사(琴師)’도 모두 3인으로 백락

爲亡命夫，帶妻包貨出晨途，獨裁洪蹟民生苦，去後全邦一淚無。”

41) 이상의 두 작품이 수록되기 전에 “이박사 하와이로 쫓겨가다”라는 작품을 사제했다.(削李博士趨布哇.)”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나중에 추록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42) 작품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소천곡(訴天曲)>(2수), <만수대수가(萬壽大袖歌)>(2수), <옥중화가> 등.

43) 「근대국악계인물」에는 이름과 함께 그들의 특징 및 생년과 출신지·사승 관계 등이 소주(小註)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그들의 음악 등에 대해 평한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44) 순 한글로 작성된 ‘신시’는 행갈이를 하지 않고 줄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어느 날 동무를 보고 이러한 말을 하였다. 나는 꽃을 보고 기뻐하였다. 어느 때에는 슬퍼도 하였다. 같은 꽃 같은 사람이어도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였다. 왜 그런고를 알 수도 없고 또 알려고도 아니하였다. 동무는 나를 보고 웃었다. 왜 웃는가를 못지도 아니하고 동무가 누구든가도 나는 잊었다.”

45) 이영민이 찍어 남겼던 당대 음악인들의 사진과 한시는 여러 음악 관련 문헌에 인용되어 전하고 있으나, 그 기록을 남긴 이영민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론되고 있지 않다.

준(白樂俊)·신쾌동(申快童)·한갑득(韓甲得) 등이다. 그밖에도 이소향(李素香)·김종기(金宗基) 등 가야금 연주자인 ‘가야금사(伽倻琴師)’도 2명이 포함되어 있다.<sup>46)</sup>

일제 강점의 치하에서 민중들의 현실은 당장 먹고사는 일조차 쉽지 않았을 것이기에, 판소리 등 우리 음악에 대한 이영민의 적지 않은 관심은 ‘우리 문화’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영민은 당시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소작농들을 대변하여 농민운동을 펼치기도 하였고, 학교를 창설하는 등의 교육 활동에 매진하였다. 이는 일제 강점기에 살고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 현실에 대한 자각과 아울러 민족 의식을 고취하려는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판소리 보전을 위한 후원자로 나서는 등 전통문화에 대한 이영민의 의식지향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 3. 이영민 한시의 특징과 작품 세계의 면모

이영민의 문집 『벽소시고』에 수록된 한시의 작품 세계를 살피기에 앞서, 송명회의 서문을 먼저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송명회는 순천 인근의 보성에서 활동했던 문인이자 서예가로, 이영민이 문집의 서문을 청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sup>47)</sup>

46) 음악인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작업 역시 『벽소시고』가 편찬된 이후에도 꾸준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진흥회에서 정리해 펴낸 『한국 국악 인명록-관극(觀劇)·시(詩)·사(寫)』에는 「청구악부초」에 수록된 41명을 포함해 모두 54인의 음악인들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이영민의 음악인들에 대한 사진 촬영 작업은 1920년부터 1948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청구악부초』에 언급된 인물들 가운데 김명옥(金明玉)은 사진 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며, 「관극 시 사」에 새로이 보이는 인물들은 모두 14명으로 다음과 같다. 김염운(金雲雲: 시조창), 김용련(金容蓮: 판소리), 홍두환(洪斗桓: 고수), 성명관(成明寬: 가야금), 임소향(林小香: 판소리), 김옥주(金玉珠: 검무), 임종성(林鐘成: 피리), 오기석(吳基石: 판소리), 정남희(丁南希: 가야금), 조동선(曹東善: 판소리), 박춘섭(朴春燮: 가야금), 성윤준(成潤準: 판소리), 오천봉(吳千峯: 피리), 오학남(吳鶴南: 거문고) 등.

47) 송명회는 문집에 ‘벽소시고서’를 쓴 것을 비롯하여 문집 발간을 기념하는 <증제(贈題)> 1수를 수록하고 있으며, 이영민의 한시 <자술(自述)>과 수작시인 듯 같은 제목의 송명회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문집에 수록된 이영민의 한시 <여송소파 손우재 제의 등죽도봉(與宋小波孫愚齋諸益登竹島峯)>과 <화송소파(和宋小波)> 등을 통해 송명회와의 친분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사방을 두루 유람하여 서로 결연하여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경학과 덕행과 문장과 학술로 당대에 이름을 떨친 사람들이 왕왕 있었는데, 재주를 지니고 도량을 품어 매우 특별하여 뛰어난 선비 같은 경우는 한둘조차도 얻을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벽소(碧笑) 이군(이영민)을 알게 되었는데, 군은 어려서부터 탁월하고 뛰어나서 못사람들과 같지 않았다. 시대의 조류가 변하는 것을 보고 인재를 기르기로 생각하여 세상의 쓰임에 대비하고자, 동지를 규합하고 학원을 창설하여 십수 년을 교육에 종사하였다. 시대에 막히고 형세에 갇혀 액운으로 실의에 빠져 그 의지를 펼 데가 없으면, 나라 안의 산수를 느긋하게 유람하며 시구를 읊조리고 술을 마시고 즐기면서 답답한 마음을 풀었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종종 비장함이 넘치어, 『검남시고(劍南詩稿)』의 여운이 있었다. 그리고 절구시(絕句詩)는 사물을 형상함에 더욱 정교했으며, 인정과 물태를 묘사하고 무늬가 있는 것이나 해진 것을 모두 담아내었다. 또한 때때로 서예를 함께 익혔는데, 필체가 강건하여 좋아할 만하였다. 군을 아는 사람은 혹 시사(詩詞)와 필법이 일세에 절모함을 찬탄했지만, 그 재기가 분방하여 장차 투신하는 곳마다 보탬이 될 것임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다만 그의 한두 가지 재주가 옆으로 넘쳐 나온 것일 뿐이다. 군은 이미 만난 사람들과는 가깝고 이익이 되는가를 따지지 않고 온전히 예술가와 문인들과의 교류에 뜻을 두었으며, 중국과 조선의 조정과 재야의 명사들에게 인정받아 기증하였던 서화가 상자에 넘칠 정도였다. 또 오래되고 이름난 이들의 골동품을 많이 수집하여 자신의 보배로 소장하였고, 때때로 꺼내 전시하면서 감상하였다. 아! 군은 끝내 이렇게 늙었구나. 내가 승주(昇州)에서 머물 적에 어진 이와 호걸들과 함께 날마다 시를 지으며 회포를 풀었는데, 군은 외람되이 나를 너무 좋아했고 매번 지은 글이 있으면 문득 서로 평가하고 교정하였다. 나는 이미 군의 됄됨이를 알고 또 그 특별한 재능과 기예를 좋아하기에, 이처럼 한 마디를 제목으로 삼아 책 머리에 쓴다. 신사년(1941) 동짓날, 벗이자 여산(礪山)을 본관으로 하는 소파(小波) 송명회(宋明會)가 서문을 쓰다.<sup>48)</sup>

48) “余自少，遍遊四方，所與結識人士，多矣。其以經行文術，名於當世者，往往焉。而若其抱才懷器怪奇瑰異之士，不可一二得。今得碧笑李君，君自幼，卓犖不群。見時潮遷移，思育人材，以備世用，糾合同志，勸學院，從事教導十數年。尼於時，格於勢，厄塞佗僚，無所發其志意，則漫遊域中山水，吟哦酣暢，以洩其鬱滯。故其詩往往，悲壯淋漓，有劍南遺響。而尤工絕句狀物，寫情態，采絢(糸+賴)。亦時兼習揮灑，適健可喜。知君者，或歎詩詞筆法，妙絕一時，而不知其才氣橫逸，將無所投而不利。此特其一二傍溢而出者耳。君既所遇，無當近益，專意術藝文墨之交，中東朝野諸名士所與，贈遺書畫，溢於箱篋。又多蒐古名家骨董，以自珍藏，時出而展玩之。噫！君其終以此老者耶。余客昇州，與其賢豪，日賦詩遣懷，而君謬好余深，每有作，輒相就評訂。余既識君之爲人，而又喜其能有妙藝，如此爲題一言其卷首。辛巳，南至，友人壺山小波宋明會序。” 『벽소시고서(碧笑詩稿序)』, 『벽소시고』.

서문에서 송명회는 이영민과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그가 일찍부터 학교를 창설하는 등 교육 운동에 투신했던 경력과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한시를 지으면서 문인으로서 활동했음을 밝히고 있다. 자세한 경력을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이영민이 한때 ‘시대에 막히고 형세에 간혀 액운으로 실의에 빠져 그 의지가 펼 데 없었던(尼於時, 格於勢, 厄蹇佗際, 無所發其志意)’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조선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치안유지법으로 투옥되고 이후 일제에 의해 감시를 받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송명회는 서문에서 중국 남송의 시인 육유(陸游)의 시집인 『검남시고(劍南詩稿)』의 여운이 이영민의 작품에 내재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검남시고』에 수록된 육유의 시는 금나라에 뺏긴 국토의 회복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아낸 ‘우국(憂國)’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되기에, 송명회는 『벽소시고』에 수록된 작품에 형상화된 비장함의 의미를 이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이영민이 서예가로 활동하면서 예술가와 문인들과의 교류에도 힘썼으며, 골동품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는 사실도 논하였다. 송명회가 순천(승주)에 머물 때 서로 지은 한시를 평가하는 등 친밀한 관계였음을 드러내면서, 이영민의 문집 서문을 작성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문인이자 서예가로서의 특징을 상세히 소개<sup>49)</sup>하고 있지만, 소작쟁의를 이끄는 등 지역에서 농민운동에 투신했던 경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일제의 탄압이 거셌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영민의 순천에서 소작쟁의를 주도하는 등 노동운동을 했던 경력을 애써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라 짐작된다.

‘서문’에 이어 축시(祝詩) 성격을 지닌 한시 작품들이 배치되어 있다. 아마도 문집을 발간하면서 이영민이 지인들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여기에는 <증제(贈題)>라는 제목으로 모두 7명의 한시 15수가 수록되어 있다.<sup>50)</sup>

49) 권두에 수록된 송명회의 <증제>라는 제목의 한시에서는 서예가로서 이영민의 특징을 부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와 왕희지의 근골로 오묘하게 신이함을 얻어 / 매끄럽고 힘찬 필체로 종이에 쓰면 새롭다네 / 한 번 보면 천하 사람들의 눈이 똑같이 반응해 / 집집마다 반드시 대대로 보물로 간직하고자 한다네.(鍾王筋骨妙得神, 鐵索銀鉤落紙新, 一見應同天下目, 家家要作世藏珍.)”

50) 시집 출간을 축하하는 시를 써준 이들의 활동 지역과 이름은 다음과 같다. 구례 박승림(1수), 순천 이종두(4수), 보성 송명회(1수), 여수 최석주(5수), 평택 정우홍(2수), 승려인 박한영 선사(1수), 곡성 이종선(1수) 등.

玉節金鉤別樣新    곧고 매끄러운 필체 특별한 모양 새로우니  
 心合毫精妙入神    마음은 붓의 정기와 합쳐져 묘함이 신의 경지에 들었다네  
 翻覆風雲成自格    바람과 구름처럼 자유로워 스스로 격식을 이뤘으니  
 石峯秋史更何人.    석봉과 추사에 다시 누가 있는가.  
 최석주(崔錫柱), <증제(贈題)> 5수 중 제1수.

金熱名荒喧一天    돈의 열기로 명성은 황폐해져 온 하늘이 떠들썩한데  
 江南獨恠夢詩仙    강남에서 홀로 괴이하게 시의 신선을 꿈꿨다네  
 江村佳作賞眞境    강촌의 아름다운 작품에서 참된 경지를 맛보았는데  
 更進上乘無不然    다시 나아가 경지가 올랐으니 자연스럽지 않음이 없으니.  
 박한영(朴漢永), <증제>.

앞의 작품은 여수 출신의 문인인 최석주의 <증제> 5수 중 제1수로, 서예가로서 이영민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다.<sup>51)</sup> 1행의 ‘옥절(玉節)’과 ‘금구(金鉤)’는 죽순과 금 갈고리를 지칭하는데, 이영민의 필법이 죽순이나 금 갈고리처럼 매끄러워 특별한 모양의 필체로 새롭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그의 붓글씨를 ‘입신(入神)’의 경지에 올랐음을 지적하면서, 마치 바람과 구름이 종이 위에서 노니는 듯 자신만의 격식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나아가 서예가로서 그의 솜씨는 이미 석봉 한호와 추사 김정희에 비견할 수 있다고 극찬하였다. 나머지 4수에서도 이영민의 한가로운 생활을 형상화하면서, 서예가로서의 면모에 대해서 부각하는 내용으로 채우고 있다.

다음은 승려인 박한영(朴漢永, 1870~1948) 선사(禪師)의 작품으로, 일제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꿋꿋하게 문인으로 생활했던 이영민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금열(金熱)’이란 일제가 조선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뿌렸던 이른바 ‘은사금(恩賜金)’을 의미하는 것으로, 1행의 내용은 적지 않은 이들이 그것을 받아 친일의 대열에 서서 요란스러웠던 당시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영민은 소강남(小江南)이라 칭했던 순천에서 일제의 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선(詩仙)’을 꿈꾸며 문인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 항목에 수록된 작품들은 문집 발간을 축하하는 성격을 지녔기에,

51) 최석주(崔錫柱)의 호는 학루(鶴樓)로, 여수에서 활동했던 문인이다. 이영민과 꾸준히 교류했던 듯하며, 『벽소시고』에 최석주에게 주는 이영민의 시 2편(<증학루최석주(贈鶴樓崔錫柱)>, <최학루휴여수시우등연초산정(崔鶴樓携麗水詩友登硯樵山亭)>)이 수록되어 있다.



나머지 작품들 역시 문인이자 서예가로서 이영민의 면모를 부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제 문집의 본문에 해당하는 이영민의 한시 125수(109제)의 성격과 작품 세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sup>52)</sup> 이영민의 한시는 제목과 내용을 통해 검토했을 때,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① 다른 인물과의 교류 : 50수(44제)
- ② 승경과 자연 완상 : 30수(27제)
- ③ 일상과 감회 : 28수(23제)
- ④ 사회비판과 세태 : 9수(8제)
- ⑤ 시회(詩會) 등 문학 모임 : 8수(7제)<sup>53)</sup>

우선 이영민의 한시 작품을 일별했을 때, 제목에 특정 인물의 이름 혹은 호를 적시하는 작품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개는 작품 창작 당시 교류의 면모를 반영한 작품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sup>54)</sup>, 과거 인연을 맺었던 인물들을 회고하는 내용의 작품들<sup>55)</sup>도 포함되어 있다. 이영민 자신이 서예가로 활동했기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술인들을 형상화한 작품들<sup>56)</sup>이 있으며, 무용가인 최승

52) 본문에 지인들의 작품이 모두 11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이영민의 작품과 나란히 수록되어 같은 제목 혹은 같은 시기에 창작한 수작시(酬酢詩)로 파악된다. 다만 김정후(金廷厚)의 작품(〈동천수중암(東川水仲岩)〉)만은 부기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별히 수록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시는 광진거사 김정후가 나에게 부쳐온 것으로, 그는 술을 좋아하고 호방하며 거리낌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를 존경하고 시 또한 절묘하기에, 그러므로 특별히 이 책에 기록하였다.(此詩, 廣津居士金廷厚寄余者, 而能好酒豪放無礙. 余敬之, 詩亦絕妙, 故特記此篇.)”

53) 이상은 작품의 제목과 내용을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분류한 결과이다. 시를 주제별로 분류할 때 매번 부딪치는 문제이지만, 한 작품이 둘 이상의 주제에 걸쳐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작품의 경우, 여기에서는 일단 주도적으로 드러나는 주제 항목으로 분류했음을 밝혀둔다.

54) 이 부류의 작품들 가운데 특정 인물과 거처가 함께 제시된 작품들이 적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이 항목으로 분류했다. 예컨대 <탁사정 봉반아석진영(濯斯亭逢槃阿石鎮衡)>, <제눌민김정현선생 다감정(題訥敏金貞鉉先生多鑑亭)>, <기백화당주인 희정정우흥(寄百和堂主人喜亭鄭兩興)> 등의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55) 순천부사를 지냈던 김윤식의 죽움에 조문하는 작품(〈조운양김윤식선생(吊雲養金允植先生)〉)이나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윤현진을 조문하는 작품(〈조윤현진(吊尹顯振)>), 자신과 교류했던 기녀로 추정되는 영자라는 여인을 추억하는 작품(〈억영자가인(憶英子佳人)>) 등이 이에 해당한다.

56) 대상 인물로는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 2수), 이당(以堂) 김은호(金殷鑄; 1수), 소전(素筌) 손

희<sup>57</sup>)와 ‘여류시인’으로 칭하는 김염운<sup>58</sup>) 등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시를 창작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순천 출신 권투선수였던 서정권<sup>59</sup>)이나,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땀던 손기정<sup>60</sup>)과 남승룡<sup>61</sup>) 등도 이영민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여기에 부록으로 첨부된 「근대국악계인물」의 41수를 포함하면, 이영민의 한시에서 다른 이들과 교유의 면모를 보이는 작품의 점유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sup>62</sup>) 이들 작품 유형을 검토하여 이영민의 교유 관계를 확인하고, 작가가 관심을 기울였던 인물들의 면모와 의미를 검출할 수 있

재형(孫在馨; 1수), 허림(許林; 1수) 등이다.

- 57) “하늘은 금강산을 만들었고 / 사람은 금강무를 만들었다네 / 모두 동방에 있으니 / 기이한 명성이 고금에 진동하네.(天作金剛山, 人作金剛舞. 俱是在東方, 奇名動今古).”, <중최승희 여류무용가(贈崔承喜女流舞踊家)>.
- 58) 『벽소시고』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화김염운 여류시인(和金念雲女流詩人)>, <부김염운작(附金念雲作)>(이상 21면), <증김염운 여류시인(贈金念雲女流詩人)>(25면). 이 중 <증김염운 여류시인>에서는 김염운을 황진이에 비견하는 인물로 그려놓고 있는데,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 짓는 재주와 거문고 연주는 이미 남들을 뛰어넘었고 / 얼음 같은 지조와 꽃 같은 용모는 티끌에 물들지 않았다네 / 송도에 노래 끊긴 지 삼백 년 되었는데 / 강남에 또 한 명의 황진이가 나타났다네.(詩才琴藝已超人, 氷操花容不染塵. 絕唱嵩陽三百載, 江南又見一黃眞.)”
- 59) “용맹하기는 나는 사자 같고 주먹은 쇠덩이 같았으며 / 유럽과 미국을 두루 다녔으니 누가 대적할 수 있으랴 / 여러 종목의 기술이 모두 그대와 같다면 / 우리나라가 육대주에서 제패함을 어찌 근심하랴.(勇若飛獅拳若鐵, 遍行歐美孰爲儔. 諸門技術皆如子, 何患吾邦霸六洲).”, <증권투가서정권(贈拳鬪家徐廷權)>.
- 60) “백두산 우뚝하고 압록강으로 흘러 /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덮을 영웅을 낳았다네 / 제패한 명성은 우주에 드리우고 / 나라의 위엄이 하루 만에 동서양에 가득하다네.(白頭山屹鴨江通, 產得吾邦蓋世雄. 制霸名聲垂宇宙, 國華一日滿西東).”, <증손기정(贈孫基禎)>. 이 작품에는 ‘독일 세계마라톤 경주에서 1등하다.(於獨逸世界마라톤競走一着)’라는 부기가 달려 있다.
- 61) “베를린 대회에서 범처럼 뛰고 용처럼 날아 / 우리나라의 무쇠 다리가 가장 선두였다네 / 명성은 천 년 동안 향기로울 뿐만 아니라 / 이로부터 나라의 위신이 육대주를 밝혔다네.(虎躍龍飛伯林會, 青邱鐵腳最先頭. 名聲不獨芳千載, 自是邦威耀六洲).”, <증남승룡(贈南昇龍)>. <증손기정>과 나란히 수록된 이 작품에는 ‘위와 같은 경주에서 3등하다.(上上競走三着)’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남승룡은 이영민과 동향인 순천 출신으로, 그의 이름을 딴 마라톤 대회가 해마다 순천에서 열리기도 한다.
- 62) 흥미롭게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투고했던 작품들 가운데, 농민운동과 기자 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인물들과의 교유의 면모를 보이는 작품들은 문집에서 보이지 않는다. 농민운동과 기자 활동은 물론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함께 투옥되기도 했던 박병두(朴炳斗, 1883~1935)와 관련된 <증박난거여행(贈朴蘭居旅行)>(1922.12.7.) 등을 비롯하여, 길승익(순천연학회 활동)과 김양수(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 등과 관련된 작품들이 문집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아마도 이영민 자신이 사상 문제로 연루되어 투옥되기도 했으며, 일제 강점기의 엄혹한 상황에서 출간하려고 했기에 필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신문에 수록되었던 이영민의 한시 작품들을 논하는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민의 한시에는 순천을 비롯한 여러 도시의 유적지<sup>63)</sup>와 자신이 방문했던 특정 장소, 그리고 지나쳤던 도시를 형상화한 작품들<sup>64)</sup>이 적지 않다. 특히 자신이 방문했던 지인들의 거처를 형상화한 작품들을 통해서도, 이영민의 교유 관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연자루나 환선정 등 순천의 유적지는 그의 가사 <순천가>의 배경으로 등장하기에, 작품에 형상화된 면모를 따져 그의 애향 의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인적 일상과 감회를 형상화한 작품들도 적지 않으며, 자신이 참여했던 시회(詩會) 등의 모임을 소개하는 등의 작품들도 확인할 수 있다.<sup>65)</sup> 아울러 사회의식을 드러낸 작품들<sup>66)</sup>을 통해서도 당시 현실에 대한 이영민의 비판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문집에 수록된 작품들의 특징을 이처럼 분류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작품을 분석하면서 작품 세계와 형상화의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사 <순천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영민은 순천에 대한 애정이 지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시에서도 역시 그러한 면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斜陽立馬古沙汀	저물녘 오래된 모래톱에 말을 세우니
舟斷橋崩野草青	배는 끊기고 다리는 무너져 들풀만 푸르다네
三島雲收人不見	삼산 봉우리에 구름 걷혀도 사람들 볼 수 없어
東風愁寂喚仙亭	봄바람에 쓸쓸하고 적막한 환선정이라네.

<환선정(喚仙亭)>

解印歸田昔何日	벼슬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온 게 옛적 어느 날이었나
白雲脩竹故山秋	흰 구름에 긴 대 자라는 고향은 가을이라네

63) 이영민의 작품에 등장하는 순천과 인근 지역의 유적지는 다음과 같다. 연자루, 환선정, 침계루, 향림사(이상 순천), 한산사(여수), 용호정(구례), 해운정(광양), 지산재(광주), 축석루(진주), 금강원(동래) 등. 이밖에도 순천과 인근에 있었던 정자나 지인들의 재실(齋室) 명칭도 작품 제목에 적지 않게 등장한다.

64) 서울의 한강 나무를 지나면서 창작한 <과한강(過漢江)>과 충남 광천을 지나면서 감회를 표출한 작품<과광천(過廣川)> 등이 이에 해당한다.

65) <광주석하정시회(光州石下亭詩會)>, <기목포유산시사 중앙회(寄木浦儒山詩社重陽會)> 등의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66) <주자루(舟子淚)>, <소작루(小作淚)>, <학생혁명(學生革命)> 등의 작품을 들 수 있다.

九曲溪灣春雨裏 아홉 굽이 시냇가에 봄비 내리건만  
 如今不見一羊裘. 지금 양 가죽옷 입은 한 사람 보이지 않네.  
 <제김원택의남정(題金源宅倚南亭)>

앞의 작품은 동천 가에 있었던 ‘환선정’을 돌아보며 느낀 감정을 토로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 주지하듯이 ‘환선정’은 과거에 ‘강무정(講武亭)’이라고도 불리며, 활터에 세운 정자인 사정(射亭)의 기능을 지니고 있던 장소이다. 훗날 ‘환선정’으로 개명되면서, 활을 쏘며 군사 훈련을 하던 사정 기능과 함께 순천 부사의 휴식 공간이자 정무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곳이다. 이곳에서 순천을 찾은 이들과 함께 술자리를 마련하여 시를 짓는 모임을 가졌으며, 주변에 배를 띄우고 뱃놀이를 즐겼던 유희 공간이었다. 하지만 화자가 찾은 환선정은 이제 사람들의 발길도 끊기고, 강으로 이어진 다리마저 무너져 황폐한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멀리 삼산을 배경으로 구름이 걷혔지만, 사람들도 보이지 않아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다음 작품은 을사늑약(1905) 이후 관직을 그만두고 순천의 서면 둔대마을에 은거했던 김원택이 머물렀던 의남정(倚南亭)<sup>67)</sup>의 형상을 소재로 하고 있다.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 정신을 본받아 일제의 강압 통치가 시작되자, 벼슬을 포기하고 귀향을 택했던 김원택의 행적을 떠올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도 김원택은 이 시점에 이미 세상을 떠난 듯, 가을이 지나 봄으로 접어든 시점에 찾은 의남정에는 주인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쓸쓸한 어조로 토로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행의 ‘양가죽 옷(羊裘)’이라는 표현에서, 김원택을 중국 후한의 광무제의 친구였던 엄광(嚴光)에 비겨 그의 절개를 칭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68)</sup> 이상의 작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영민은 순천에서 찾은 장소에서도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화려했던 과거의

67) 순천의 서면 둔대마을에 김원택이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기 위해 국사봉(國師峯) 아래에 지은 정자이다. 윤영구(尹甯求, 1868~1941)의 기문에 의하면, 도잠(陶潛)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남쪽 창에 기대어 자적하니, 무릎 겨우 들여놓을 작은 집도 편안한 줄을 알겠네.(倚南窓以壽傲, 審容膝之易安.)”라고 한 데서 정자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68) ‘양구(羊裘)’는 양가죽으로 만든 옷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 때 엄광(嚴光)이 입었던 옷을 지칭한다. 그는 친구였던 광무제가 황제에 등극한 뒤, 관직에 나아가지 않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다. 광무제가 후한 폐백을 갖추어 3번을 불렀는데, 엄광은 끝내 벼슬도 사양하고 부춘산(富春山)으로 들어가 숨었다. 여기서는 김원택(金源宅)을 엄광에 비유한 표현으로, 아마도 주인이 세상을 떠나고 정자만 남은 상황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풍광과 대비되는 환선정의 모습이나, 절개를 지켰던 주인을 잃은 정자의 모습을 쓸쓸한 심정으로 묘사하는 것에서 작품의 창작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이영민 자신의 생활을 토대로 한 다음의 작품들에서는 당시 서민들의 생활상을 투영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我家近城市	우리 집이 성의 저갓거리에 가까워
稚子早知錢	어린 자식이 일찍 돈을 알았다네
西舍梨方熟	서쪽 별채에 배가 막 익어가는데
跟蹤啼膝前	허둥지둥거리며 무릎 앞에서 운다네.

<성시(城市)>

醫門叩病未全治	병원 문을 두드렸어도 병을 온전히 치료하지 못했고
且乏兒童授業資	또한 아이의 수업료도 부족하다네
小妻不識嗔嗟久	젊은 아내는 알지 못한 채 성내고 탄식한 지 오래더니
請問城街買粉脂	화장품을 사려고 성안의 거리를 묻는다네.

<박봉가정(薄俸家庭)>

당시 매곡동에 살았던 이영민의 집은 시장에서 멀지 않았고, 그 까닭에 어린 자식도 돈의 가치를 일찍 깨우쳤을 것이다. 아마도 이영민의 집에 배나무가 있어 열린 배가 익어갈 무렵, 아이는 배를 수확하여 시장에 팔아 가계에 보탬 것이라고 여겼던 듯하다. 이런 낱새를 알아차린 아이는 배가 먹고 싶어 수확해도 팔지 말고 가족들이 먹자고 화자의 무릎 앞에서 떼를 쓰고 있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한 모습을 포착하여 한시로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된다.<sup>69)</sup>

다음 작품은 오랫동안의 진료에도 쉽게 치료되지 않는 병을 지니고 있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수업료 때문에 고민하는 화자의 모습이 앞부분에 제시되고 있다. 박봉을 받고 가계를 꾸려야 하는 가장인 화자 형상이 당대 사람들의 일반

69) 『조선일보』(1922.12.19.)에 수록된 원래의 작품은 작자가 바라본 일반 서민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를 화자의 상황으로 바꾸어 문집에 수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문에 수록된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다. “초가집이 성의 저갓거리에 가까워 / 어린 자식이 일찍 돈을 알았다네 / 서쪽 별채에 배가 막 익어가는데 / 허둥지둥거리며 엄마 앞에서 운다네.(茅茨近城市, 稚子早知錢, 西舍梨方熟, 跟蹤啼膝前.)”

적인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젊은 아내가 박봉의 월급으로 인해 성내고 탄식하는 모습이 3행으로 이어진다. 아마도 화자의 월급을 받은 직후인 듯, 젊은 아내가 화장품을 사기 위해 사람들에게 성안 거리의 가게 위치를 묻는다는 내용이다.<sup>70)</sup> 어쩌면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라는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과일을 팔아 가게에 보탬을 줄 수 있고, 박봉이나마 월급 생활을 하는 조금은 여유로운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과 달리 당시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담아낸 다음의 작품도 참고할 수 있다.

夫耕婦採未歸家	남편은 밭 갈고 아내는 나물 캐느라 귀가도 못했는데
蓬戶兒啼日欲斜	누추한 집에서 아이는 울고 있고 해는 저물려 한다네
稅吏入門還自去	세금 걷는 관리가 대문에 들어서다 스스로 돌아가는데
靑隴吠落野櫻花	청삼살개 짖고 들엔 앵두꽃이 떨어진다네.

〈전가(田家)〉

당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농민들의 고단한 현실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흔히 보릿고개로 표현되는 봄철 농가의 생활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편은 농사를 짓느라 밭에서 일하고, 아내는 그나마 먹을 수 있는 나물을 캐느라 늦도록 귀가하지 못하는 현실이 제시되어 있다. 더욱이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는 부모를 기다리며 끝내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의 모습이 이어진다. 그러한 광경을 목도한 ‘세리(稅吏)’조차 세금을 독촉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문에 들어서다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시 농민들의 참혹한 현실이었다고 하겠다. 마지막 행에서는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개가 짖고 앵두꽃이 떨어지는 들판의 평화로운 모습이 제시되면서, 그러한 계절감을 느낄 겨를조차 없는 농민들의 비감한 처지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sup>71)</sup>

70) 이 작품 역시 신문에 수록된 작품을 약간 변개하여 문집에 수록하고 있다. “병원 문을 두드려 병은 다행히 완치되었으나 / 또한 궁핍하여 겨울에 학자금도 늦었다네 / 젊은 아내는 이해하지 못해 성내고 탄식한 지 오래더니 / 웃으며 새로운 거리로 향해 화장품을 샀다네.(醫門叩病幸全治, 且乏窮冬留學資, 少妻不解嘆嗟久, 笑向新街買粉脂.)”, 『조선일보』 1922.12.19. 일부이지만 원래의 작품이 문집에 수록되는 과정에서 번개를 겪는 것은 작자 의식과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문 수록 작품들을 고찰하면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71) 소작농의 생활상을 묘사한 <소작루>라는 작품에서는, 소작농이 대부분이었던 농촌 현실의 실

다음으로 문인으로서 이영민의 활동과 지인들과의 문예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汀洲木落鴈橫空 모래톱에 나뭇잎 지고 기러기는 하늘을 가로질러 나는데  
 又過重陽吟社中 또 중양절 지나 음사(吟社)하던 시기라네  
 佇對盃樽悵恨久 우두커니 술동이와 술잔을 마주한 채 슬퍼한 지 오래인데  
 黃花如待李雲翁 노란 국화는 마치 운옹 이병휘를 대하는 듯하네.

<난국음사(蘭菊吟社)>

兩載相思隔一天 두 해를 같은 하늘을 사이에 두고 서로 그리워하다  
 樽前世話意無邊 술동이 앞에서 세상 이야기하느라 생각이 끝이 없다네  
 浮生定算多移換 덧없는 인생은 정해진 계산조차 변화가 많아  
 每感空洲未繫船. 매양 빈 물가에 매어둔 배가 아님을 느낀다네.

<연진회아음(鍊眞會雅吟: 癸未年 1943)>

앞의 작품은 순천의 서면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문인들의 시사(詩社) 모임인 ‘난국음사(蘭菊吟社)’에 대한 화자의 회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제목 다음에 “운옹 이병휘는 순천 군수 시절에 남과 김효찬과 음사(吟社)를 창설했다.(云翁 李秉輝, 順天郡守時, 與金南坡, 勸設吟社.)”라는 기록이 부기되어 있다. 실제 ‘난국음사’는 1914년 이병휘와 김효찬 그리고 윤종균 등 3인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시사(詩社)이며, 이후 10여 년 동안 봄과 가을에 시회를 열면서 1922년 무렵까지 활동을 이어갔다. 이 작품은 ‘난국음사’의 활동이 멈추었던 시절, 시회가 열렸던 중양절(음력 9월9일)을 맞아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다. 문인들이 모여 시회를 열면,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서로의 작품을 품평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화자는 시회가 열리지 않는 중양절을 맞아 홀로 ‘우두커니 술동이와 술잔을 마주한 채’ 슬픔에 젖어 있을 뿐이며, 주변에 핀 노란 국화를 보며 아마도 이미 세상을 떠난 듯 음사 창설의 추억이었던 이병휘를 떠올리고 있다고 하겠다. 난국음사는 한동안 활동이 뜸하다가, 다행스럽게 1953년에 재건되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상을 실감 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김용찬, 『이영민과 <순천가>』, 10~12쪽에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다음 작품은 1943년에 개최되었던 ‘연진회(鍊眞會)’에 참석하여 지었던 한시로, 『벽소시고』에는 이영민의 작품과 함께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오일영(吳一英, 1890~1960)과 허백련(許百鍊, 1891~1977) 그리고 박준규(朴準圭)의 한시 각각 1수씩이 첨부되어 있다. ‘연진회’는 허백련을 중심으로 광주에 개설되어 전통 서화교육과 교유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며, 모임의 이름인 ‘연진(鍊眞)’은 참됨을 연마한다는 뜻으로 서화를 통한 인격도야를 지향했다고 한다. 연진회가 창설된 이후 서화인들의 교류와 후진 양성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는데, 전쟁 동원 체제가 가속화되면서 모임 장소를 빼앗기는 등 일제의 탄압으로 활동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작품은 1943년(계미년) 2년 만에 열린 ‘연진회’에 참석하여 서로 시를 주고받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일제 강점기 말엽에 이미 모임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한 듯, 작품에는 불투명한 전망에 대해서 토로하는 화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술동이 앞에서 세상 이야기하느라 생각이 끝이 없’이 펼쳐지는 반가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물가에 매어둔 배’는 언제든지 탈 수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불투명하여 그렇지 못하다는 화자의 쓸쓸함이 토로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실상 여기에 소개된 작품의 경향은 이영민의 문집에 수록된 작품들 가운데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동안 판소리와 관련된 일부의 작품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이영민의 한시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이영민의 문학 세계에 대한 일단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고자 한 연구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의 한시에는 고향인 순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잘 드러나 있으며, 동시대에 활동했던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유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한시를 창작하여 문학 활동을 했던 이영민의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해, 이러한 시도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4. 맺음말

이상으로 벽소 이영민의 한시집인 『벽소시고』에 수록된 한시 작품을 대상으로, 일제 강점기 한시를 창작했던 문인들의 활동과 의식 세계의 일단을 확인해 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책의 표지는 한자로 『벽소시고(碧笑詩稿)』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그 옆에는 ‘위창 팔십옹 오세창(葦滄八十翁吳世昌)’이라는 글씨와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의 도서(圖書)가 선명하게 찍혀있다. 이로 보아 이영민이 자신의 시집을 엮은 후, 1943년 오세창에게 표제의 글씨를 청하여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송명회의 서문이 1941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서문을 받을 당시까지는 원고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오세창에게 표제 붓글씨를 받아 비로소 1차 편집을 완료한 것이라 하겠다. 이후에 작성된 작품이 시집의 뒷부분에 추가로 수록되어 있어, 1차 편집을 완료한 후에도 계속 보완했음을 알 수 있다.

표지 안쪽에는 ‘벽소시집(碧笑詩集)’이라는 표제 아래 송명회의 서문과 이영민의 한시 등이 배열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부(府) 청구악부초(靑邱樂府抄)」라는 제목과 함께 판소리 <춘향가>를 한역한 <옥중화가(獄中花歌)>를 비롯한 5수의 한역시와 「근대국악계인물(近代國樂界人物)」이라는 기록 아래 송만갑(宋萬甲)을 비롯한 41명의 국악 관련 인물들에게 써주었던 이영민과 지인들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이영민과 지인들이 써준 한시를 배경으로 전통 예술인들의 사진도 전해지고 있어, 이 시기 예술사를 재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그의 문집인 『벽소시고』의 체제에 주목한다면, 문인으로서 이영민의 면모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언제 국권이 회복될지 모르는 암울한 식민지 상황 속에서 이영민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통문화와 고향 순천에 대한 애정을 환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인물이다. 우석 김종익에게 고향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권유한 것도 당시에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일이다. 그는 이미 순천에서 야학을 시작으로 공립학교를 인가받는 등 교육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열악한 처지에 있던 농민들을 위해 소작쟁의를 주도하는 등 농민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던 이영민의 생애를 재구하면서, 문인이자 독립운동가로서 그의 행적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이영민, 『벽소시고』(유인본).
- 이정규 편, 『한국 국보급 국창·명창·명고·명금 사진시집』, 순천사진인쇄공사, 간행 연도 불명.
- (사)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판소리진흥회 편, 『한국 국악 인명록 : 관극(觀劇)·시(詩)·사(寫)』, 간행 연도 불명.
- 이희목 외, 『일제 강점기 한시 자료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 순천시사 편찬위원회, 『순천시사 : 문화·예술편』, 1997.
- 김대현, 「소파와 설주의 생애와 시문학 연구」, 『고시가연구』 17, 한국고시가문학회, 2006.
- 김용찬, 「벽소 이영민과 <순천가>」, 『한민족어문학』 58, 한민족어문학회, 2011.  
(UCI : G704-001066.2011..58.004)
- \_\_\_\_\_, 「순천의 유적과 명승을 따라 거닐다, <순천가>」, 『오늘의 가사문학』 18, 한국가사문학관, 2018.
- 김풍기, 「<해동집>의 편찬과 그 의미」, 『강원문화연구』 24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5.
- 민병수, 「한말의 우국문학」, 『한국문학 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 박영미, 「<대동학회>·<신문계>·<조선문예> 소재 한시에 나타난 ‘봄’ 상징에 관한 일고찰」, 『한문학논집』 23, 근역한문학회, 2005.
- 송미경, 「『벽소시고』 소재 <옥중화가>의 특징 및 당대 판소리와와의 관련성」, 『판소리 연구』 49, 판소리학회, 2020.  
(DOI : 10.18102/jp.2020.04.49.127)
- 송보라, 「단가 <순천가> 연구 : 사실과 붙임새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2014.
- 윤재환, 「일제 강점기 신문 소재 한시의 성격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소재 회고 한시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38,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3.  
(UCI : G704-001593.2013.0.0.052)
- 이종목, 「일제 강점기 한문학 연구의 성과」,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  
(UCI : G704-000619.2005..13.013)
- 이혜령, 「한자 인식과 근대어의 내셔널리티」, 『탈식민의 역학』, 소명출판, 2006.
- 이희목, 「일제 강점기 한시 소고」, 『인문과학』 45,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0.

- 임보연 외, 「근대 전환기 한시의 역할 : <삼천리>를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통권 49, 한국리터러시학회, 2022.
- 임성래, 「이영민 한시를 통해 본 판소리 명창의 세계」, 『판소리연구』 10, 판소리학회, 1999.
- 임성운, 「순천 지역의 근대 문학」, 『남도문학과 근대』, 케포이북스, 2012.
- 정소연, 「근대 여성잡지에서서의 한시 수록 양상과 의미 : 노래의 향유자에서 시의 독자로서의 여성」, 『국어국문학』 199, 국어국문학회, 2022.
- 정혜정, 「순천 지역 판소리 전승 양상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_\_\_\_\_, 「벽소 이영민의 판소리 향유 방식과 의식지향 : <옥중화가>를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50, 판소리학회, 2020.  
(DOI : 10.18102/jp.2020.10.50.273)
- 정훈, 「일제 강점기 한시 잡지 <해동집>의 간행과 특성 연구」, 『국어문학』 77, 국어학회, 2021.  
(DOI : 10.23016/klj.2021.77.77.175)
- 제정화, 「벽소 이영민의 <순천가>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진재교, 「근대 전환기 한시의 대응 : 근대 인쇄 매체와 한시와의 상관성」, 『한국시가연구』 24, 한국시가학회, 2008.  
(UCI : G704-000454.2008.24..012)

| Abstract |

##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Byeoksosigo(碧笑詩稿)' and the Characteristics of Lee Youngmin's Chinese Poetry

Kim, Yong-chan  
Suncheon National Univ. Prof.

Although Korean modern literature began to develop in earnest in the early 20th century, major works of classical literature were still actively enjoy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ince the late 18th century, the wave of modernization, which has been pushed hard, has taken its place as an irreversible flow of the times, and in response to this movement, the conflicting consciousness of 'cheoksa' and 'gaehwa' has emerged. These contradictory tendencies were concentrated on the theme of patriotism or patriotism enlightenment in the Chinese poetry works of the literary men who were active at that time.

In particular, Chinese poetry works on these subjects were published in various papers including newspapers. By examining the works of Chinese poetry writers who were active during this period, we can get a glimpse of the aspects of the perception of the times. The introduction and study of Chinese poetry recorded in major newspapers and magazines in the present day has been steadily carried out, but on the other hand, the research results on the literary works of Chinese poets who created Chinese poet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aspects of the works of Chinese poetry are insufficient.

In order to examine the aspects of the writers' creation of Chinese poet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 would like to study <Byeoksosigo>, a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by Byeokso Lee Youngmin(1882~1964). Since <Byeoksosigo> contains more than 120 Chinese poems by Lee Youngmin,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activities and aspects of the works of Chinese poetry writers at that time through the review of this literature. Lee Youngmin was an independent activist who was active in Sunche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led the peasant movement in the Suncheon area and led the tenant dispute.

During the same period, he created a poetry and weaved a collection of poems, but Lee Youngmin's aspect as a literary person has not yet been studied properl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Lee Youngmin invited traditional artists to Suncheon to arrange performances, and created a poem about their music and photographed it in the background. As a literary man, he compiled a collection of poems he created and compiled a collection of poems. In this study, the works contained in Lee Youngmin's literary works were categorized based on the titles, along with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tem and discussing the world of works by presenting some works. In addition, the newspaper articles of the time were searched to reconstruct and introduce Lee Youngmin's activities, and the organization and features of <Byeoksosigo> were reviewed.

**Key Words:** Byukso(碧笑) Lee Youngmin, Byeoksosigo(碧笑詩稿), a literary collection, chinese poem creation, period of Japanese colonial, peasant movement etc.

